

龜尾의 지역성 변화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접근*

이재하** · 이해주***

본 연구는 최근에 지리학에서 새로운 지역연구 방법론으로 등장하고 있는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 의하여 특정한 지방(locality)인 구미지역을 사례로 경험적인 지역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된 한국자본주의의 발달시기를 일제식민기, 해방후 혼란기, 경제발전기 등으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따른 구미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공간구조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지역성 변화를 밝히려고 하였다.

구미지역도 일제식민기와 해방후 혼란기에는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세계경제의 주변지대에 속하면서 농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지역의 공간구조도 도시가 형성되지 않은 농업사회적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개발기에 들어와서는 구미지역도 한국의 산업화정책에 포함됨으로서 산업지역(구미공단 조성)으로 변모돼 세계경제의 반주변지대로 발전한다. 이와 함께 공간구조도 산업이 입지한 지역(도시)과 그렇지 않은 지역(농촌)간의 불균등발전이 심화된 중심-주변의 공간구조로 변화되었다.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특정 지방(소지역)의 지역성 변화를 거시적인 세계적 맥락(세계자본주의)에서 경제적(산업적) 특성 뿐만 아니라 공간구조적 특성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지역연구에 유용한 지리학적 방법론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 龜尾지역, 지역성, 경제적 특성, 공간구조

1. 서론

1) 연구목적

1980년대 이후 지리학에서는 공간의 상대적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리얼리즘(realism)의 등장과 거대이론을 거부하고 특수성과 차이를 강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으로, 지역의 특성 또는 차이점을 연구하는 지역지리학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의 사회적 문제(social affairs)에서 공간이 가지는 내재적 중요성에 주목하는 현대사회이론과 접목된 다양한 새로운 지역연구 방법론이 개발되었는데,

이를 신지역지리학(new regional geography)이라고 한다. 신지역지리학의 연구방법론으로는 구조화이론, 노동의 공간분업론, 세계체제론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사회이론적 지역연구방법론 또는 신지역지리학은 보편적인 사회적 변동의 프로세스(process)와 지역(또는 장소)을 고유한 것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산하는 사회적 과정 사이에는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을 연구한다.

이 가운데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world-system)에 기초한 지역연구방법론을 말한다. 세계체제론은 1900년 이후 세계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하나의 시장경제 속에 통합된 분업체제 곧 세계경

* 이 논문은 공동연구자 이해주의 석사학위 논문을 전면적으로 수정·발전시킨 것임.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

***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지리전공)

계(world-economy)라는 단일의 세계체제를 이루며 역사적으로 유지·발전돼 왔다면, 사회현상도 개별적인 국가사회를 벗어나 이러한 범세계적인 사회체제, 즉 세계체제의 맥락에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Wallerstein, 1974; 1979; 1980). 세계체제론적 지역연구는 Taylor(1988; 1991a; 1991b)를 비롯하여 여러 학자(Hoekveld, 1990; Terlouw, 1990; Thrift, 1990; Bradshaw, 1990)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Taylor의 방법론이 선구적이고, 또한 이론적으로도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이다.

Taylor는 세계체제론에 내재된 공간개념(중심, 반주변, 주변지대)에 유의하여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지리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련의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이재하, 1993). 그 가운데 그의 신지역지리학은 지역이 세계체제의 산물이라는 인식하에 지역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메커니즘(mechanism)속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지역연구방법론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는 지역을,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중심, 반주변, 주변지대로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세계체제(세계경제)의 일반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되었다가 소멸되는 역사지역(historical regions)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 개념에 의해 특정한 지역의 지역성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연구는 국제지역, 국가지역, 국가내지역 및 지방(locality) 등의 다양한 규모에서 분석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이재하, 1997, 참조).

이와 같이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국내외의 다양한 크기의 지역을 범세계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해외지역연구 뿐만 아니라 지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국내의 각 지방(지방자치단체 지역) 연구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역연구방법론으로 평가된다(이재하,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도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 의한 경험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체제론적 지역연구 또는 신지역지리학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의 특정한 지방 단위지역(龜尾지역)을 사례

로 경험적인 지역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된 국가내의 지방 단위지역, 즉 구미지역의 지역성이 실제로 어떻게 변천되는지를 밝혀줄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분석범위는 현재의 도·농통합형 도시인 구미시 지역이다. 이 지역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택한 것은 이 지역이 1995년 1월 1일에 과거의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지역으로서 역사적으로나 일상생활면에서 볼 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기초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지역규모상 전형적인 국지 또는 지방(locality)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지역을 이루고 있어 지방 단위지역의 분석규모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미지역은 세계체제에 편입된 한국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여서 세계체제론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간적 분석범위는 한국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로 하였다. 한국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의 시각에 따라 상이하다(조용범 외, 1988).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은 1876년에 일본과의 불평등 수교조약(강화도 조약)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시작하였지만, 곧 이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1910~1945년)로 대일 종속적인 식민자본주의 경제로 전락하여 세계경제에 있어서 전형적인 주변지대로 되었으며, 해방후 1960년까지는 식민지에서는 벗어났으나 다시 대미(對美) 종속적인 주변지대로 재편되었으며, 1960년 이후는 비록 해외의 존적이기는 하지만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에 주력하여서 세계경제의 반주변지대로 부상하였다고 볼 수 있다(金泳鎬, 1988). 이러한 한국자본주의 발달시기의 구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시기를 일제식민기(1910~1945), 해방후 혼란기(1945~1960), 경제개발기(1960~현재) 등으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공간적 범위에서 구미지역의 지역성 변화를 경제적 특성과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는 세계

체제(경제)에 편입된 지역의 경제적 분업(특히 노동의 공간적 분업)역할에 초점을 두고 지역성(경제적 특성)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각 시기별 경제적 특성 분석에서 구미지역이 세계 경제내에서 어떤 경제적 분업역할을 해왔는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자한다. 세계체제론에서는 노동력의 통제방식, 생산(품)의 다양성, 기술수준 등의 생산프로세스(process)에 의해 세계경제를 중심, 반주변, 주변 등의 3분업체제 또는 지역으로 나누어 보기 때문에, 한 지역의 분업적 역할은 각 생산프로세스와 관련된 자료에 의해 분석·설명된다. 그러나 본 연구지역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의 부족으로 생산(품)의 다양성과 관련된 자료 가운데 그나마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한 생산업의 구성(산업별 인구비율)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재하의 수정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는, 세계경제의 일반 메커니즘에 따라 한 지역의 경제적 특성(또는 역할)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 그 지역의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등의 제 특성도 변화될 수 있다는 가설을 주장하였다(이재하, 1997, 128).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시기별로 경제적 특성을 살펴봄과 함께 지리학의 기본적인 관심사인 공간구조를 분석해 봄으로써 구미의 지역성 변화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공간구조는 한 지역의 공간발전을 잘 반영해주는 인구와 교통망의 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와 교통망의 분포는 한 지역에 있어서 경제활동의 입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발전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기본적인 척도가 될 수 있고, 더욱이 교통망은 그러한 공간구조를 형성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중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기(Janelle, 1974) 때문이다.

3) 연구지역의 개관

경상북도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구미시는 1995년 현재 면적 617.28km²에 인구 304,217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농통합형 도시이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신라시대에 일선군(一善郡) 또는 일선주(一善州), 고려시대에 선주(善州)

또는 일선현(一善縣) 등으로 불려졌으나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선산군(善山郡)으로 개칭되었다. 그후 한때 인접한 해평현이 합병돼 도호부로 승격되기도 하였으나 고종 32년(1896년)에 선산군으로 다시 개편되었다. 1914년에는 선산군 내의 18개 면이 9개 면으로 통폐합되었으며 1963년은 구미면이 구미읍으로 승격되었다. 그후 구미공업단지의 조성으로 구미읍은 1978년 2월에 칠곡군 인동면을 편입하여 구미시로 승격되었다. 1979년 5월에는 선산면이 읍으로 승격되기도 하였다. 정부의 시·군 통합조치로 1995년 1월에는 구미시와 선산군이 합쳐져 도·농복합형 통합시가 되었다. 현재 행정 구역은 구(舊)구미시의 22개 동과 선산읍 및 무을, 옥성, 도개, 해평, 산동, 장천, 고아 등의 7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1. 참조).

구미지역의 지형은 대체로 주위가 높고 중앙이 낮은 분지형을 이루고 있다. 서북쪽에는 수선산(684m)·복우산(509m)·삼봉산(448m)·형제봉(531m)이, 동북쪽에는 청화산(701m)·냉산(692m)·장자봉(422m)이, 남쪽에는 금오산(977m)·유학산(839m)·천생산(407m) 등이 솟아 있다. 중앙부에는 낙동강과 감천이 관류하며, 그 유역에는 넓은 충적평야(선산들,해평들)가 발달해 있다. 이곳의 기후는 온대 하계고온다습기후구에 속해 온화하나, 대륙성 기후로 한서의 차가 크다. 연평균 기온은 11.9 °C 이나, 1월 평균기온은 -1.3 °C이고, 8월 평균기온은 24.4 °C이다. 연강수량은 1,000~1,200mm로서 벼농사를 비롯한 각종 농업에 적합한 지역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이와 같은 농업에 유리한 자연환경적 조건 때문에 예로부터 미작 농업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이 지역의 중심적 산업은 공업이다. 한국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정책에 따라 이 지역에도 1969년부터 공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에 조성된 구미공업단지(1, 2, 3 단지)에는 1995년 현재 72,331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 제조업 종사자는 이 지역 총취업자의 과반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구미 공업단지에는 전기·전자 업종과 섬유 업종이 주로 입주해 있다. 공장용지 부족으로 최근에는 제 4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인근 농촌지역으로도 공업이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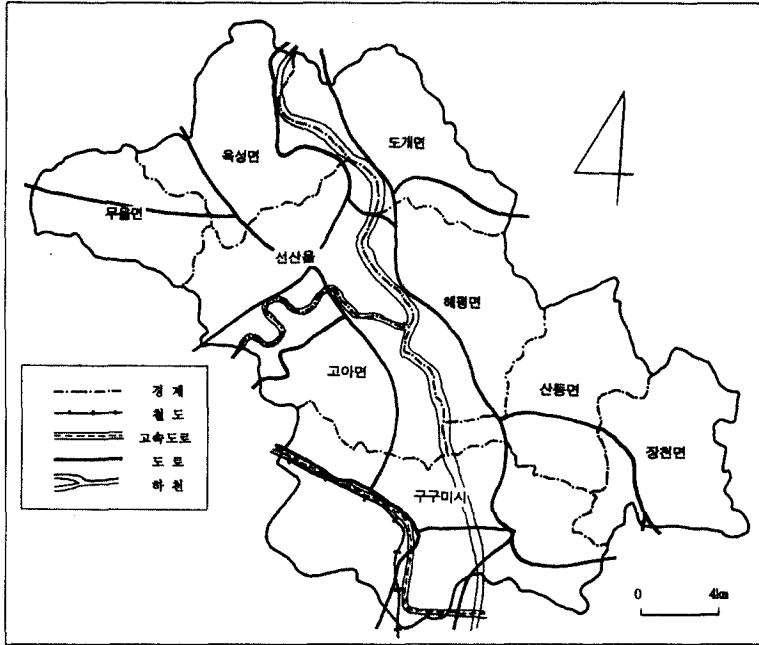


그림 1. 구미지역의 행정구역과 교통망(1995)

2. 일제식민기의 구미지역

1) 경제적 특성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기 시작한 한국은 1910년 한일합방으로 대일 종속적인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반주변적 위치에 놓여 있었던 당시 일본은 식민지 한국에 대한 수탈과 착취를 본격화하였다. 일본은 식민지 한국을 그들의 경제발전(산업자본주의화)에 필요한 원료 및 식량생산지, 노동력 공급지, 상품판매지 등으로 이용하는 식민지 경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일제는 그러한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남농북공(南農北工)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남한에서는 농업이, 그리고 북한에서는 공업원료산업(광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약간의 중화학공업이 발달되었다. 당시 한국은 이와같은 대일종속적인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로 인해 세계경제에서 농산물 및 공업원료를 주로 생산·공급하는 역할을 하

고 있어서 전형적인 주변지대적 경제에 속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구미지역도 대일 농산물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세계경제의 주변지대에 속하고 있었다. 농업에 유리한 자연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구미지역은 일제에 의해 그들의 농산물 수탈을 위한 농업지역으로 개발되었다. 당시 이 지역의 산업(농업)발달에 대해서는 자료의 결핍으로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1950년대에 이 지역의 농업발달(1959년의 경우 농업종사자 인구비율은 89.4%)을 감안하면 당시 이 지역의 농업종사자 비율은 90%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이 지역이 전형적인 농업지역이었다는 사실은 선산, 고아, 해평, 구미면 등과 같이 농경지 면적이 넓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에서도 (표 1. 참조) 확인해 볼 수 있다. 당시 주요 농산물은 쌀, 보리, 콩, 면화 등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일본으로 수탈·공급되었다는 것은 당시에 나타난 새로운

공업(도정업)의 발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 지배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1920년 4월 1일에 회사령을 철폐하고 한국내에 회사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도 회사(공장)의 설립이 확대되었는데, 이 시기에 설립된 공장은 미작위주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정공장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구미상공회의소, 1991, 334). 이 지역의 근대적 도정업은 한국인의 토착 소자본에 의해 선산면의 동부동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20년 12월에 일제에 의해 산미증산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쌀의 일본 반출이 본격화 되자 일본인들은 그것에 용이한 경부선 철도의 구미역 연변(구미면 원평동 일대)에 대자본을 동원하여 다수의 도정공장을 설립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 지역의 미곡 유통업은 이들 일본인 도정업자들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하였으며, 미곡상을 겸하고 있었던 이들은 쌀값에 대량의 쌀을 사들여 도정한 후 그 대부분을 철도편으로 일본에 반출하였다고 한다(구미상공회의소, 1991, 336).

2) 공간구조

이 지역의 공간구조는 당시 이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이 지역이 일제에 의해 식민지적 농업지역으로 개발됨에 따라 공간구조도 기본적으로 농업지역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1918, 1930년)에 이 지역내의 면별 인구 분포는 면별 농경지 면적과 거의 비례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전통적 농업사회에서 중심지(central place)적 기능과 역할을 하였던 정기시장(이재하 외, 1992, 52~54)이 농업인구와 농경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지역(면)을 중심으로 선산장(2·7일), 구미장(1·6일), 해평장(4·9일), 장천장(5·10일) 등이 개설되고(文定昌, 1944, 271) 있다는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시기에 들어와 구미지역의 공간구조는 이 지역에 대한 일제의 농산물 수탈이 본격화되면서 다소 변모되기도 하였다.

일제는 이 지역의 선산평야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을 일본으로 용이하게 반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빗겨가던 경부선 철도(1905년 개통)의 노선을 이 지역내로 경유하도록 하는 선로변경공사(1914~1919년)를 감행하였다. 원래 경부선 철도의 칠곡군 약목역과 김천역 사이의 선로는 금오산 남쪽을 돌아 거의 직선에 가까운 연장 25.7km로 개설되어 있었으나, 이 노선을 금오산의 동북쪽으

표 1. 구미지역의 인구 및 농경지 분포 (1918, 1930)

	1918			1930	
	인구수	구성비(%)	농경지(결)	인구수	구성비(%)
선산면	9,184	13.8	853결57부4속	10,916	14.0
무울면	5,799	8.7	448결18부9속	7,012	9.0
옥성면	5,084	7.6	479결2속	6,672	8.5
도개면	5,390	8.1	489결28부7속	6,436	8.2
해평면	8,074	12.2	692결34부1속	9,020	11.5
산동면	6,128	9.2	580결35부	6,994	9.0
장천면	6,519	9.8	450결23부3속	6,932	8.9
구미면	9,252	13.9	686결94부3속	11,876	15.2
고아면	9,955	15.0	818결21부4속	12,013	15.4
계	66,141	100.0	5,498결13부3속	77,811	100.0

자료 : 선산군지(1988) ; 이해주, 1995

龜尾의 지역성 변화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접근

로 우회시켜 선산평야와 접하고 있는 구미면을 통과하도록 하는 오늘날과 같은 노선(연장 35.8km)으로 변경하여 이설하였다(구미상공회의소, 1991, 333). 그리고 이 노선변경과 함께 신설된 구미역 주변(원평동 일대)에는 1920년대부터 이 지역의 쌀 수탈이 본격화되자 이에 앞장서는 일본인 소유의 도정공장이 다수 입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식민지 수탈적 교통망과 산업(도정업)으로 구미역이 위치한 구미면은 이 지역에서 새로운 공간적 중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1918~1930년 사이의 면별 인구분포와 구성비에서 구미면이 그동안에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는 사실(표 1. 참조)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2〉는 일제시 이 지역의 공간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1930년 현재 이 지역의 면별 인구분포와 주요 교통망을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면별 인구분포(원의 크기)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이 지역의 공간구조는 지배적인 중심지(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전산업사회(농업사회)적 공간구조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이 지역의 공간구조는, 일제의

이 지역에 대한 농산물 수탈정책으로 지역내 근대 교통의 중심이 된 구미면이 상대적으로 더 성장하기도 하는, 이른바 식민지적 공간구조의 성격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3. 해방후 혼란기의 구미지역

1) 경제적 특성

8·15 해방으로 일본에 종속된 식민자본주의 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난 한국은 곧 이른 미군정(1945.9.15~1948.8.15)과 6·25전쟁 및 전후(戰後) 경제복구를 위한 미국의 막대한 경제원조 등으로 인하여 대미(對美) 종속적인 자본주의 경제로 재편되었다. 당시의 미국의 대한(對韓) 경제원조는 한국경제의 회생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였지만, 현물원조가 많아 한국의 산업화를 지체시키고 한국경제를 대미 의존적인 소비경제구조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의 한국은 여전히 자본주의 세계경제 내에서 주변지대로 머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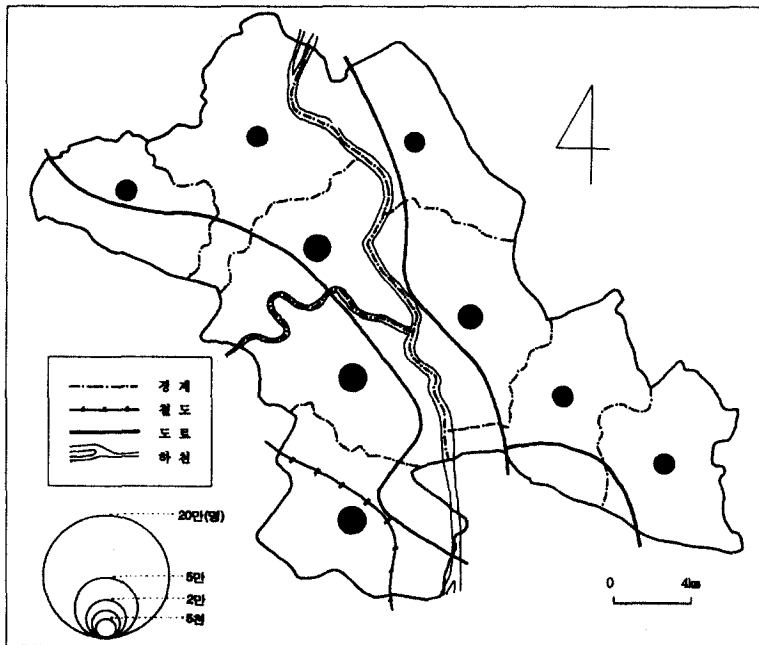


그림 2. 구미지역의 인구분포와 교통망 (1930)

이 시기에 구미지역의 산업도 당시 한국경제의 자본주의적 특성 즉, 주변지대적 경제특성을 반영하여 전형적인 농업경제에 머물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1959년) 이 지역의 산업별 인구에서 89.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잘 확인된다(선산군 통계연보, 1962). 당시 주된 농산물은 일제식민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곡이었고, 이 밖에 보리, 콩, 과실류(특히 사과), 채소류(무, 배추), 면화 등도 많이 생산되었다. 이들 농산물 가운데 특히 쌀, 보리, 사과, 채소류 등은 낙동강과 감천유역에 형성된 비옥한 평야지대, 즉 선산, 해평, 구미, 고아면 등지에서 주로 재배·생산되었다. 그리고 당시 이 지역 농업에서 특기할 것은 우수한 품질의 인삼(일명, 도개인삼)이 도개면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다는 것이다(선산군지편찬위원회, 1968, 55~56).

공업도 이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1958년 현재 전체 공장(111개소)의 거의 대부분은 도정공장(94개소)이었다. 또한 도정공장은 농경지 면적이 넓은 선산면(15개소), 구미면(13개소), 고아면(13개소), 해평면(13개소) 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하고 있었다. 한편 도정업 이외의 공장으로는 인쇄업(3개소)과 철공업(4개소)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상업에서도 농업사회적 특성이 반영되어 당시에 유일한 농산물 유통기관인 농

촌 정기시장이 더욱 발달되었다. 1950년대 말 이 지역에는 옥성면을 제외한 8개 면에 농촌 정기시장이 개설되고 있었다.

2) 공간구조

이 지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제시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이 중심산업이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있어서 이 지역의 인구(1946년에 101,360명, 1959년에 103,376명)는 거의 정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의 인구분포도 농업지역적 인구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농경지 면적이 넓은 지역(구미·선산·해평·고아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표 2. 참조).

그러나 면별 인구규모와 순위에서는 일제식민시기의 그것과는 다소 달라졌다. 일제시기(1930년)에는 고아·구미·선산면 순으로 인구가 많았으나, 이 시기의 말(1958년)에는 구미·선산·고아면 순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장 인구가 많은 구미면은 전 인구의 17.7%를 점유할 만큼 그 규모가 타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표 2. 참조). 그 동안에 구미면이 선산군청 소재지인 선산면보다 더 큰 지역으로 성장한 것은 구미역의 편리한 철도교통으로 인해 이곳의 중심지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시기에 들어와 군청

표 2. 구미지역의 인구 및 농경지 분포 (1958)

	가구수	인구수	구성비(%)	농경지(町)
선산면	2,748	16,068	15.6	17,944
무을면	1,464	8,270	8.0	11,011
옥성면	1,285	7,973	7.7	14,037
도개면	1,336	7,720	7.5	12,472
해평면	2,057	12,871	12.5	19,886
산동면	1,319	8,611	8.3	12,627
장천면	1,383	8,886	8.6	9,559
구미면	3,102	18,287	17.7	18,056
고아면	2,442	14,117	13.7	21,719
계	17,136	102,803	100.0	137,311

자료 : 선산군 통계연보(1959년)

龜尾의 지역성 변화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접근

소재지인 선산면은 선산면-해평면간 도로(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일선교는 1967년 개설)와 선산면·옥성면-상주간 도로의 신설로 도로교통의 결절기능이 강화되었다(그림 3.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산면이 지역의 최대 중심지로 발달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에 도로교통의 기능이 매우 취약해 공간구조 형성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3〉은 1958년 현재 구미지역의 인구분포와 교통망을 나타내 주고 있다. 비록 이 시기에 들어와 구미면이 그동안의 철도교통적 요인 때문에 지역내에서 가장 큰 면으로 성장하여 이 지역의 공간구조가 구미면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재편되고는 있으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구미지역의 공간구조는 여전히 뚜렷한 지역중심지(도시)가 형성되지 않은 농업사회적 공간구조적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4. 경제개발기의 구미지역

1) 경제적 특성

1962년부터 한국은 정부주도로 산업화(공업화)에 의한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했다. 처음에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위주로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는 중화학 공업 중심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산업화의 성공적인 전개로 1970년대부터 한국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주변에서 반주변지대로 상승하였으며, 이후 계속된 산업화와 기술개발로 최근에는 세계경제의 중심(core)지대에 근접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은 구미지역에서도 진행되었다. 구미지역의 산업화는 한국사회의 그것보다 다소 늦은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1960년대 말까지 구미지역은 미작 중심의 농업지역이었다. 1968년말 현재 구미지역의 산업별 인구를 보면 총 취업자의 절대다수(81.0%)가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1969년말 현재 제조업은 피복 및 장신구업, 가구업, 피혁업 등을 중심으로한 86개업체에 고작 216명이 종사할 정도로 극히 부진하였다(선산군 통계연보, 1970). 그러한 구미지역은 1969년부터 구미읍에 조성되기 시작한 구미공업단지로 1970년대 이후에는 공업지역으로 변모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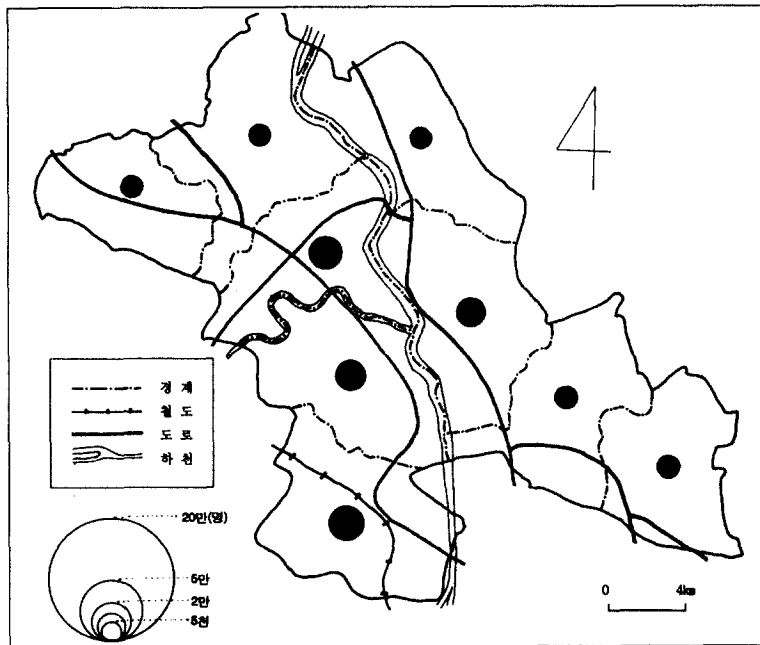


그림 3. 구미지역의 인구분포와 교통망 (1958)

시작하여 세계경제에서 반주변적 산업지역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그 동안 구미공업단지는 제 1단지(1969~1973년 조성), 제 2단지(1977~1981년 조성), 제 3단지(1987~1992년 조성)가 조성되어 1995년 현재 전자 및 섬유업종 중심의 403개 업체에 72,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인접한 농촌지역의 공업화에도 영향을 끼쳐 고아, 산동, 해평면 등에 각각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1995년 현재 56개 업체에 2,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표 3. 참조). 이러한 공업화로 1995년 현재 구미지역은 산업종사자의 약70%가 공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종사자 비율은 약10%로 크게 낮아졌다.

더욱이 구미공업단지에서 생산된 공업제품은 1971년부터 수출(당해연도 수출액 824만달러)되기 시작하여 1990년말 현재에는 52억달러에 달할 만큼 수출산업단지로서 놀라운 발전을 기록하였다. 수출업종에서도 1975년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액에서 섬유가 54%, 전자관련부문이 46%였으나, 1989년에는 섬유부문이 25.2%, 전자부문이 74.8%로 바뀌어져 보다 기술의존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의 비중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 상품의 수출대상지역이 과거(1985년)에는 중심지역(선진국)에 편중(71.7%)되어 있었으나, 1990년에는 그 비중(64.8%)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반주변 및 주변지역(개발도상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구미시지편찬위원회, 1991, 424~427). 이

러한 사실에서 볼 때 구미지역의 공업은 업종과 기술수준에서도 세계경제에서 반주변적 역할(분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전자산업의 요람으로서 발전해온 구미공업단지는 그 동안 입주업체들의 기술개발 노력으로 최근에는 가전제품, 반도체, 통신기기 등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첨단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첨단산업공단으로 부상하고 있다(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509~530). 이에 힘입어 구미공단은 1990년 이후 21세기를 지향하는 첨단산업단지를 더욱 확대 개발하기 위하여 제 4단지(약 200만평) 조성계획을 추진하여 왔는데, 이 조성사업은 금년(1999년) 5월에 공식적으로 착수되었다. 이처럼 구미지역은 농업지역에서 1970년대 부터는 산업지역으로 변모되었으며, 최근에는 첨단산업지역으로 다시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2) 공간구조

경제개발기에 있어서 이와 같은 구미지역의 산업화는 지역내의 인구분포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하였다. 1965년 당시 인구 21,945명이던 구미읍은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으로 급격하게 성장해, 1978년에는 시로 승격하고, 1980년에는 인구 10만명(103,403명)을 초과하였으며, 1995년에는 23만8천 여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여타 읍·면지역 즉, 과거 선산

표 3. 구미지역의 공업단지 (1995)

		단지수	면적(천m ²)	입주업체수	종업원수(명)
국가 공단	제 1 단지	1	10,420	217	55,183
	제 2 단지	1	2,275	57	7,528
	제 3 단지	1	4,783	129	9,620
	계	3	17,478	403	72,331
농공 단지	해평	1	63	12	266
	산동	1	67	14	453
	고아	1	198	30	1,375
	계	3	328	56	2,094
합계		6	17,806	459	74,425

자료 : 구미통계연보(1996)

龜尾의 지역성 변화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접근

군 지역은 1965년에 96,989명이던 인구가 계속적인 인구유출로 1990년에는 62,424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1995년에는 다소 증가된 65,79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과 1995년 현재 구미지역의 인구분포를 구(舊)구미시와 선산군내의 읍·면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미지역의 인구분포는 이전의 시기와는 크게 달라져 특정지역으로의 집중 현상이 심화돼 구구미시의 인구가 전인구의 78.3% (1995년 현재)를 차지할 만큼 공간적 불균형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것과는 크게 달라져, 산업(공업단지)이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구구미시와 그렇지 않는 주변농촌지역(선산군지역)간의 공간적 발전격차가 심화되는 공간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미지역의 산업자본주의화는 공간적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켜 지역내에 있어서 중심(core)-주변(periphery)의 공간구조를 형성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표 4. 구미지역의 인구분포 (1990, 1995)

	1990		1995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구구미시	206,101	76.7	238,422	78.3
선산읍	19,365	7.2	21,407	7.0
무을면	3,385	1.2	3,400	1.1
옥성면	3,146	1.1	2,979	0.9
도개면	4,222	1.5	3,949	1.2
해평면	7,506	2.7	7,790	2.5
산동면	4,435	1.6	4,579	1.5
장천면	4,960	1.8	4,462	1.4
고아면	15,405	5.7	17,229	5.6
합계	268,525	100.0	304,217	100.0

자료 : 구미시 통계연보(1991, 1996), 선산군 통계연보(1991)

그 동안에 이 지역의 교통망도 공단건설과 인구 증가로 크게 확충되었다. 1970년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가 구구미시역을 통과하게 되었고, 이 외에도 구구미시-칠곡 가산면, 구구미시-고아면, 도개면-군위군 간의 국도 및 지방도가 확장되거나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 들어와 이 지역의 교통망도 구구미시를 중심으로 크게 확충돼 구구미시의 공간적 결집기능도 더욱 더 강화되었다.

구미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이와 같은 인구분포 변화와 확충된 주요 교통망을 지도로 표현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산업화된 구미지역의 공간구조는 농업사회일때의

이 논문은 최근의 지리학계에서 새로운 조류로 등장하고 있는 신지역지리학의 방법론 가운데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접근에 의하여, 자본주의 세계체제(세계경제)에 편입된 한국 내의 특정지역(구미지역)이 세계경제의 메커니즘에 따라 어떻게 그 지역성이 변화되는지를 연구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체제론적 관점에 따라 한국자본주의 경제의 발달시기를 일제식민기(1910~1945), 해방후 혼란기(1945~1960), 경제개발기(1960~현재) 등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따른 구미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공간구조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지역성 변화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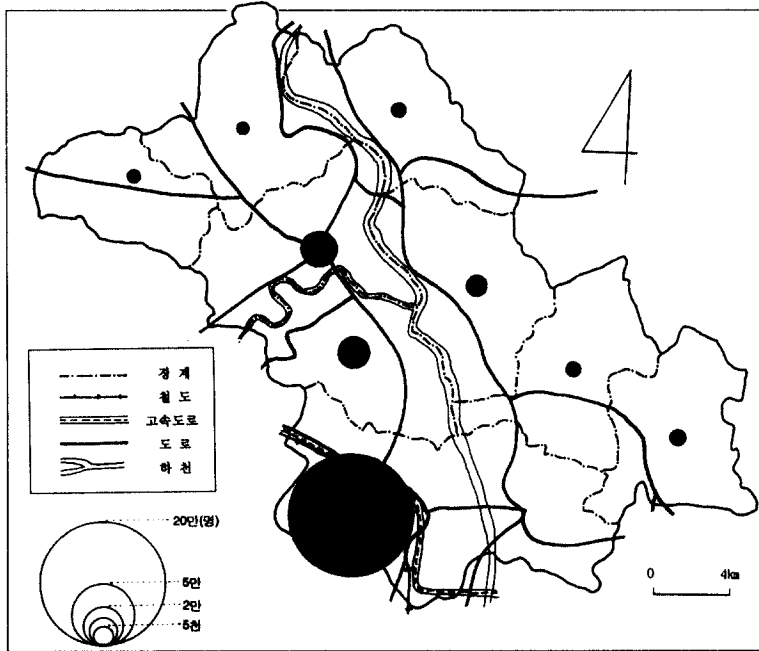


그림 4. 구미지역의 인구분포와 교통망 (1995)

그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식민기에 한국(남한)은 일제에 의해 농산물 수탈을 위한 식민지 농업지역으로 개발되면서 세계경제의 주변지대로 편입되었다. 이 시기에 구미지역도 벼농업에 유리한 자연환경적 조건 때문에 일제의 농산물(특히 쌀) 수탈을 위한 농업지역으로 개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간구조도 농업지역적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제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용이한 수탈과 반출을 위해서, 원래 금오산 남쪽으로 지역을 빗겨가던 경부선 철도를 지역내 평야지역(구미면)을 경유하도록 하는 노선 변경공사(1914~1919년)를 감행하였는가 하면, 신설된 구미역 주변에는 일본인 도정업자들이 다수의 도정공장을 설립하고 쌀 반출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식민지 수탈적 교통망과 산업(도정업)으로 구미역이 위치한 구미면이 이 지역의 새로운 공간적 중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지만, 이 지역의 공간구조는 경제적 특성(농업)을 반영하여 도시 또는 지배적인 지역중심지가 발달하지 않은 농업사회적 공간구조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해방후 혼란기에는 한국이 대미 종속적인 경제로 재편됨에 따라 여전히 산업화(공업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세계경제의 주변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 시기에 구미지역도 주변지대적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그에 따른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이 시기에 구미지역은 이전시기와 마찬가지로 농업이 중심적인 산업이 되고 있었으며, 지역의 공간구조에서도 철도교통의 이점을 가진 구미면이 이 시기에 가장 큰 면으로 성장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농촌의 소중심지에 지나지 않아, 전체적인 공간구조는 지배적인 지역중심지(도시)가 발달하지 않은 농촌사회적 구조로 형성돼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기에 있어서 한국은 산업화(공업화) 위주의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1970년대 부터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주변에서 반주변부지대로 상승·발전하게 된다. 이 시기에 구미지역도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포함됨으로서 신흥공업지역으로 변모돼 반주변지대적 경제지역으로 발전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간구조도 산업사회의 구조로 크게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구미지역의 산업화는 한국사회의 그것보다 다소 늦

은 1969년부터 당시 구미읍에 공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는데, 그 동안 구미공업단지는 제 1, 2, 3단지로 확대·개발되어 1995년 현재 전자 및 섬유업종 위주의 403개 업체에 7만 2천여명이 종사하는 대규모 공단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산업화로 구미지역은 공단이 입지한 구미읍(시)은 이후 급성장하여 1990년대에 인구 20만을 초과하는 도시로 발전하였는데 반해, 다른 지역(선산군)은 오히려 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구미지역의 산업자본주의화는 지역내에 있어서 공간발전의 양극화현상을 유발하여 지역의 공간구조를 중심-주변의 구조로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국가내 특정 지방(구미지역)의 지역성 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세계경제)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세계경제의 일반 메커니즘에 의해 특정 지역의 경제적 특성(지위)이 변화하면, 그 지역의 공간구조적 특성도 함께 변화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각 지방 또는 소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방법론으로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을 널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文 獻

구미상공회의소, 1991, **구미상의십년사**.
 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구미공단이십년사**.
 구미시지편찬위원회, 1991, **구미시지**.
 박찬석·이재하, 1984, 성점거점의 주변농촌에 대한 파급효과: 구미공업단지를 사례로, **(경북대) 사회과학**, 3, 85~98.
 선선군, 1969, **구미도시계획재정비안**.
 선산군지편찬위원회, 1968, **선산군지**.
 선산군지편찬위원회, 1988, **선산군지**.
 이재하, 1993, 테일러의 세계체제론적 지리학,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서울, 358~372.
 이재하·홍순완, 1992, **한국의 장시**, 민음사, 서

울.
 이재하, 1997, 세계화시대에 적절한 지역연구방법론 모색: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보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115~134.
 이해주, 1995, **세계체제론적 관점에 따른 지역연구: 구미지역을 사례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기준, 1985, **한국자본주의 성립사론**, 대왕사, 서울.
 조용범외 20인, 1988, **한국자본주의의 성격논쟁**, 대왕사, 서울.
 金泳鎬, 1988, **東아시아工業化と 世界資本主義**, 東洋經濟新報社.
 Bradshaw, M. J., 1990, New regional geography, foreign-area studies and Perestroika, **AREA**, 22(4), 315~322.
 Hoekveld, G. A., 1990, Regional geography must adjust to new realities, in R.J. Johnston, J. Hauer and G.A. Hoekveld (eds.), **Regional Geography: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Routledge, London, 11~31.
 Janelle, D., 1974, Spatial reorganization: a model and concept, in M. Hurst(ed.), **Transportation Geography**, McGraw-Hall, New York, 358~378.
 Taylor, P.J., 1988, World-system analysis and regional geography, **Professional Geographer**, 40(3), 259~265.
 Taylor, P.J., 1991a, A future for geography, **TERRA**, 103(1), 21~31.
 Taylor, P.J., 1991b, A theory and practice of region: the case of Euro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9(2), 183~195.
 Terluow, C.P., 1990, Regions of the world system: between the general and the specific, in R.J. Johnston, J. Hauer and G.A. Hoekveld (eds.), **Regional Geography: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Routledge, London, 50~66.

Thrift, N. J., 1990, Doing regional geography in a global system : the new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e City of London, 1984-7, in R.J. Johnston, J. Hauer and G.A. Hoekveld(eds.), *Regional Geography :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Routledge, London, 180~207.

Wallerstein, I., 1974, *The Modern World-System*, Academic Press, New York.

Wallerstein, I., 1979,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Wallerstein, I., 1980, *The Modern World-System II*, Academic Press, New York.

World-Systems Analysis on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the Kumi Region

Jaeha Lee* · Hae-Joo Lee**

Summary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the Kumi region as a locality in Korea through the regional geography of the world-system approach. To illustrate the changing regional characteristics, we analyzed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r position of the Kumi region within the world-economy and its spatial structure with three divisions of Korean capitalist periods: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the social chaos period (1945~1960),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period (1960~present).

In the Japanese colonial and social chaos periods, as Korean society was incorporated into the peripheral zone within the world-system (world-economy), Kumi also was made into a peripheral agricultural area. As a result, the Kumi region shaped the rural spatial structure without an urban center or regional dominant center. In the development

period, influenced by the manufacturing-centered economic policy which boosted Korea as a semi-periphery within world-economy, Kumi also was developed into an industrial region(or semi-peripher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umi electronic and textile industrial complex. This industrialization transformed the rural spatial structure of Kumi into a core (urban center)-periphery (rural area) structure.

As we identified above, the regional geography of the world-system approach turned out to be a useful methodology to study a locality or internal region. Therefore we should make efforts to study such regions through the regional geography of the world-system approach.

Key words : regional geography of world-system, Kumi region, regional characteristics, economic characteristics, spatial structur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Master of Education in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